

# 민주당 “DJ·盧 삶 되새긴다” 목포에서 봉하까지 추모순례

하의도·광주·섬진교·부산 거쳐 盧10주기 추모식 참석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목포에서 봉하까지 '민주주의의 길' 출정식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기리는 도보순례 '목포에서 봉하까지 민주주의의 길' 출정식을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 참석해 “두 전 대통령의 고향을 돌아보면서 두 분이 살아온 정치적 삶을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고 노 전 대통령과는 1988년부터 정치를 같이 시작한 동지적 관계로 살아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모시는 3번째 대통령으로,

두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이어받아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국가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목포·여수·순천 등 서남해안이 아름다운 포구인데 지역의 숙원사업인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그 지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었다”며 “그 길을 걸으면서 슬픈 현대사, 보람찬 현대사를 잘 둘러보시고 현대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대장정이 되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하의도에서 봉하까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살아온 역정을 함께 느끼면서

걸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두 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길, 지도 없는 길을 개척한 분들이고 민주당을 만들어낸 분들”이라고 두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이번 일정은 21일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를 시작으로 23일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끝난다. 참가자들은 하의도 등 광주·섬진교·부산을 거쳐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들은 하의도 농민운동기념관, 부산 민주항쟁기념관 부산근대역사관 등도 들를 계획이다. 이번 추모 순례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민주화 성지를 둘러보고 두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의미에서 당 청년위원회가 기획했다. 청년위원회 청년당원 15명과 민주당 당직자 등 20여명이 순례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정을 기획한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통화에서 “5·18을 거머오는 23일까지 추모기간이고 또 올해는 두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의미 있다”며 “젊은 층들이 민주화 성지나 두 전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추모 열기를 살려서 이번 추모 순례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이인영 “나경원에 국회 파행 사태 유감 전달 안해”

비공개 최고위서 호프 회동 보고 “지금은 안맞는 이야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전남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인한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감 표명을 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런 거(유감표명) 지금 고려 안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수석부대표 역시 “오보다. 유감 표명을 전혀 안했다”면서도 “그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비공개 최고위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게 전날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 대해 보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유감 표명 여부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지금으로서는 안 맞는 이야기”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어 “어제 그냥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빠른 시간 안에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민생과 경제에 도움 될 수 있게 국회가 노력하자. 역사사지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

나면서 “큰 틀 속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 후 표정이 다소 어두웠던 것에 대해서는 “전 밥도 먹고 호프도 먹었지만 국민들은 아직 밥도 굶고 계시고 술 한 잔도 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러면서 추경에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던 거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빴던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어제 간담회에 대해 보고하고 최고위원들로부터 추경, 민생안법이 시급하니까 조속하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들었다. 내일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유감 표명 메시지를 낼 테니 국회에 복귀해 달라”는 취지의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오신환 “주말 지나면 국회 정상화 가시권에 들어올 듯”

“민주·한국 감정 골 깊어...분위기는는데 시간 걸러”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 전날 저녁 호프회동에 대해 “두 당이 격렬한 대치 속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하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지 한달 여 지난 시점에 3당 원내대표가 웃는 낯으로 만났다”며 “국회 파행이 여기에서 더 이상 장기화하면 곤란하다.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어제 회동을 계기로 냉각기를 거치면서 이번 주말을 지나면

정상화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다”며 “제 희망은 국회 정상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플레이 메이커로서 관을 깔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만나기로 합의한 만큼 적절한 시점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원내 기조에 대해서는 “민주적 운영”과 “신제적 대응”을 꼽았다. 오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협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하고 원내대표단이 이를 받아 협상을 관철시키는 민주적 운영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정하고 추진을 압박하는 형태를 지양하겠다”며 “의견차는 충분히 조율해 합당한 결론을 도출

하는 내부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말했다. 또 “주분하고 싶은 것은 미리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다 적극적인 공세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가령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추경안(추경안)을 내놓고 빨리 국회를 열어 심의해 달라고 여론전을 펴는데, 시기적으로 5월 임시국회 개최는 어렵다고 해도 6월 국회가 열리기 전 상임위별로 추경안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등 정국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임 원내대표단을 소개하며 “의총에서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며 “어려운 시기에 수락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원내대표 임기가 20회 국회 임기와 같다. 당을 살린다는 각오로 성심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靑 “말은 그 사람의 품격”...황교안 “대변인 짓” 발언 비판

청와대는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로 같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일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과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하나의 막말이 또다른 막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5·18의 진실을 보수·진보로 나눌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이날 인천 민생투어 대장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황당해서 대꾸도 안한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대변인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가수 승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문호 경경이 경찰 소환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봤는데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뉴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